

한국경제

# [마켓인사이트]슈워츠먼 블랙스톤 CEO "탄소배출 15% 줄일 기업에만 투자할 것"

기사입력 2020-11-09 14:46 최종수정 2020-11-10 10:04

세계경제연-KB금융 ESG 국제컨퍼런스서 기조연설

"내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 회복 본격화될 것"  
미중 갈등에 대해선 디커플링 오래가진 않을 것"

블랙스톤, 투자 결정 앞서 ESG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장을 '지원'하는 섹터에 주목해야  
"코로나로 인한 저평가 자산 선별 투자도 유효"

<<이 기사는 11월09일(11:40) 자본시장의 해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블랙스톤은 앞으로 15% 이상의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기업에만 투자할 것입니다."

스티브 슈워츠먼 블랙스톤 그룹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사진)는 "탄소배출량과 전력소비량을 줄

일 수 있는지 여부가 장래의 수익성으로 연결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9일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슈워츠먼 회장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투자 전문가다. 1985년 리먼브러더스 최고경영자(CEO)였던 피터 피터슨과 블랙스톤을 창업해 세계 최대 사모펀드 그룹으로 키웠다. 운용 자산은 5710억달러 규모다. 대체투자 분야에 강점이 있다.

슈워츠먼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글로벌 경제와 투자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블랙스톤의 시각을 공유했다. 그는 올해 연말 백신 개발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회복기에 들어설 것이라 전망했다. 무역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 중인 미국과 중국은 결국 상호 공존하는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에 접목하는 ESG를 투자 뿐 아니라 조직의 경영 측면에서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대응에 성공한 국가로 꼽히는 한국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비쳤다.

기조연설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슈워츠먼 회장의 대담 형식으로 이뤄졌다. 인터뷰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인 4일 이뤄졌다. 다음은 전 이사장과 슈워츠먼 회장의 일문일답.

**▷미국 대선과 관련해 조금 여쭙고자 한다. 특히 미국 대선과 상원 선거 결과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나.**

"일단 인터뷰를 하는 시점에선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둔다. 이번 선거는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 몇 개의 주에선 개표와 관련해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상원의 경우엔 의석의 과반이 공화당이 차지되고, 미국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만 자리는 조금 내어줄 것이라 본다.

흥미롭게도 이번 선거는 의석 변경이 있는 파동 선거가 벌어지면서 민주당이 미국의 방향을 재편할 것이라 많이들 예상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다. 상원이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바이든이 승리하더라도) 연립 정부가 되지 않을까 싶다. 분단된 정부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한 정당이 장악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한국만큼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이지 못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코로나에 잘 대응했다. 그 결과 경제도 잘 회복했다. 미국 경제도 반등하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과 마찬가지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코로나는 미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연말 연초 즈음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허가가 이뤄질 것이다. 2021년 말이 되면 백신을 원하는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정도에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 예상한다."

▷ **현재 많은 국가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글로벌 이슈가 바로 미중 관계다. 그레이트 디커플링 (Great Decoupling)이라고도 한다.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미래에 미중간 디커플링 현상이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보나. 미중 관계에 실질적인 변화 있을 것이라 보나.**

"미중 디커플링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속화된 부분이 있다. 미국이 관세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의 장을 원하게 되면서 디커플링은 발생했다. 중국은 40년간 발전을 거듭했다. 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00달러였던 국가가 지금은 인당 1만 1000달러의 국가로 성장했다. 엄청난 성장이다. 한국도 한국전쟁 이후 괄목한 성장했었다. 중국 역시 그 과정에 있다.

일반적으로 급속도로 성장 할 때 개발도상국들은 관세 장벽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을 성장시킨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 대해 서양 국가들은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세계에서 경제력이 2번째로 큰 국가인데 그만큼 스스로 변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서양 국가처럼 개방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생각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은 인당 GDP가 6만 달러인 국가고 여전히 중국은 1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다며 '나중에는 바뀌어야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성숙 단계의 서양 국가처럼 개방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다양한 갈등의 요소가 발생했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기술 분야. 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자국민 통제를 위해서 대대적인 방화벽 기술을 사용해왔다. 미국은 이런 기술에 대해 중국에 상당한 기술을 공급했다. 미국이 공급한 기술로 중국이 성장한 것인데, 이런 기술은 개방성을 전제로 한다. 기술에 대한 개방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더 이상 미국이 중국에 기술을 공급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기술 분야가 미중 갈등의 큰 요인이 된 이유이고 앞으로 해결 가능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의 35~40%를 차지한다. 때문에 양 국가가 사실상 분리될 수는 없다. 둘 다 경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디커플링은 의미가 없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 국가가 원하는 부분과 자국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 타협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관건이다.

차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의회 자체는 중국에 대한 태도를 크게 바꾸진 않을 것이다. 물론 민주당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비해선 온화한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대중 정책과 중국에 대한 입장이 혁명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공존의 해법 찾을 것이라 본다. 두 나라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기후변화 등 전세계적인 표준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 **점점 환경보호와 사회가치창출, 바람직한 거버넌스 등 ES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SG 개념은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투자 의사 결정에 ESG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물리적으로 바뀌고 있다. 대대적인 자연재해가 미국에서 잇따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세계의 기온이 증가하고 있고, 극지방에서 빙하가 녹고 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가 문제다.

정부 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도 할 일이 있다. 블랙스톤은 지난주 블랙스톤이 인수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사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탄소 배출량을 15% 감축할 수 있는 곳에만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의 투자 요구 조건이 늘어난 것이다. 탄화수소와 전력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수익성을 늘려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는 소득 불평등도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다. 블랙스톤은 더 다양한 배경의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들을 채용 풀에 넣어 인재군을 확대했다. 리쿠르팅 대상 대학교의 수가 5년간 4배 가량 증가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다양성 증진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 수는 50년 전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 5년 전만 해도 블랙스톤 애널리스트의 15%만이 여성이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여성들이 금융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 2~3학년 때 여학생들이 블랙스톤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학생들은 금융권이 그들 생각처럼 그저 무서운 곳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됐다. 지금은 신입사원의 40~50%가 여성이다. 정말 놀라운 변화다.

투자 기업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투자 및 인수하는 모든 기업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다양한 소수 인적 집단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다양한 관점이 발전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다. 코로나 이후 투자 전략이나 유형이 어떻게 바뀌었나,

"블랙스톤에선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우리가 테마 투자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자산이든지 좋은 동네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을 살 때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을 찾아야 한다. 투자 세계에서 좋은 동네라고 하면 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실제적인 위험이 위험이 없는 곳을 말한다.

요즘 우리는 기술 분야를 주로 본다. 현재 고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우리 아직 벤처투자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 투자하지 않지만 기술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기에 향후 괜찮은 분야가 될 수 있다. 헬스케어, 생명과학, 쇼핑 등 분야도 주목하는 분야다.

온라인 쇼핑 트렌드에도 주목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만이 온라인 쇼핑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성장 산업은 그 배경에 지원 서비스들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블랙스톤은 전 세계에 걸쳐 10억 제곱피트에 달하는 물류창고를 매입했다.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선 그 나라에서 1~2위의 점유율을 보이기도 한다. 온라인 쇼핑을 위해선 고객에게 배송할 상품이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이 증가할 수록 물류센터의 가치는 높아진다. 우리 이런 메가 트렌드가 일어나는 분야를 찾고, 간접적으로 그 트렌드를 투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금과 완전 다를 것이다. 테마파크 산업을 예로 들면 이 산업은 일단 반등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블랙스톤은 상당히 큰 테마파크 산업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정지된 모드의 회사라고 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떠오를 분야의 경우,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좋은 조건에 인수해 기다리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

▷최근 자서전 격인 책 '투자의 모험'이 출간됐다. 독자들이 이 책에서 어떤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나.

"나는 단순하게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다.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는 금융 뿐 아니라 비영리 회사, 정치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는데, 그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다. 성공하고 꿈을 이루는 방법,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방법, 상상하고 야심찬 꿈을 꾸는 방법,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 급성장하는 분야에 투자를 하는 방법,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채용할 때 인재를 고르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 등등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

사람마다 '젊을 때 알았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싶은 것들이 있다. 내 경험을 통해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은 성공을 이루고 실패는 적어지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런 측면에서 나의 25가지 원칙을 통해 내가 50년간 배운 것을 들여보면 독자들의 자기 계발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한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해 정말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한다. 다른 선진 국가들은 대부분 실패한 코로나 대응에 성공했다는 것이 놀랍다."

▷그 말씀은 한국 투자를 더욱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다.

"블랙스톤은 이미 한국에 17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한국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 한국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 ▶ 애플·테슬라 지금 사도 될까? 궁금하면 '해주라'
- ▶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5&aid=0004446409>



# 축사하는 반기문

기사입력 2020-11-09 08:59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 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0627>



# 축사하는 반기문

기사입력 2020-11-09 08:59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 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0628>



# 축사하는 반기문

기사입력 2020-11-09 08:59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 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0626>



# 축사하는 반기문

기사입력 2020-11-09 08:59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 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0629>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 축사

기사입력 2020-11-09 08:59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 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

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0632>

---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 축사

기사입력 2020-11-09 08:59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 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0630>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 축사

기사입력 2020-11-09 08:59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 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0633>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 축사

기사입력 2020-11-09 08:59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 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0631>



# 축사하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

기사입력 2020-11-09 08:59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 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0635>



# 축사하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

기사입력 2020-11-09 08:59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 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0634>

---



#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

기사입력 2020-11-09 09:02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 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0653>



#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

기사입력 2020-11-09 09:02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 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0652>



#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

기사입력 2020-11-09 09:02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 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0650>



# 2020 ESG 글로벌 서밋,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기사입력 2020-11-09 09:28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반기문 국가 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0714>



# 2020 ESG 글로벌 서밋,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기사입력 2020-11-09 09:28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반기문 국가 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0717>



# 2020 ESG 글로벌 서밋,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기사입력 2020-11-09 09:28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반기문 국가 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0716>



# 2020 ESG 글로벌 서밋,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기사입력 2020-11-09 09:28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반기문 국가 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0715>



#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 화상 기조연설

기사입력 2020-11-09 09:31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참석자들이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의 화상 기조연설을 보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0737>



#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 화상 기조연설

기사입력 2020-11-09 09:31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참석자들이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의 화상 기초연설을 보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0738>

---



#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석좌교수 화상 기조 연설

기사입력 2020-11-09 09:51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참석자들이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석좌교수의 화상 기조연설을 보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0816>

---



#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석좌교수 화상 기조 연설

기사입력 2020-11-09 09:51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참석자들이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석좌교수의 화상 기조연설을 보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0817>



# 반기문 "바이든 당선은 파리기후협약에 돌아오리라는 것"

기사입력 2020-11-09 10:03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 축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콘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은 9일 "미국이 앞으로 파리기후협약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이므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공동주최 국제콘퍼런스 축사에서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앞으로 파리기후협약 협상 테이블로 오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를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가능한 기후변화의 파괴성을 볼 수 있었다"며 "공중보건 위험 증가, 공급망 충격, 보험사와 인덱스펀드 위험 증대, 경제위기 장기화 등 문제가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는 물론 영리기업도 기업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영위해 가지 않으면 어떤 미래가 그려질지 상상해 봤을 것"이라며 "기후변화는 우리가 모두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글로벌 이슈이며, 다자적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서 기후변화 노력이 지금처럼 부진해서는 안 된다"며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AI)이 일어나는 한국과 같은 강국에서 노력하고, 기후변화 선두주자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바이든의 당선 연설은 미국 국민뿐 아니라 한국인, 전 세계에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치유, 단합, 미국이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 존엄성, 인간성, 믿음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우리와도 관련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2020 지속가능경영(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을 주제로 열렸다.

hye1@yna.co.kr

-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0876>

---



# 세계최대 사모펀드 "바이든 對中정책, 혁명적 변화 없을 것"

기사입력 2020-11-09 11:38

블랙스톤 슈워츠먼 회장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주최 콘퍼런스 대담서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 화상 기초연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참석자들이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의 화상 기초연설을 보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對)중국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9일 전망했다.

슈워츠먼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공동주최 국제콘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의 기초연설에서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

기조연설은 슈워츠먼 회장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담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이전에 녹화됐다.

슈워츠먼 회장은 대담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미 의회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탈동조화(디커플링) 문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향한 강경정책이 눈에 띄게 변화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점은 대화법이 다소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관세 정책 대신 양국 호혜적 정책 등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혁명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슈워츠먼 회장은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경제의 35~4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양대 산맥을 이루는 두 국가 경제가 지속해서 디커플링을 나타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두 국가가 상대 국가가 원하는 방향이면서 자국 이해와도 맞는 방향으로 타협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2020 ESG 글로벌 서밋, 기념 촬영을 하는 참석자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9 pdj6635@yna.co.kr

역시 녹화 기조연설자로 나선 프란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이 세계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려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과 영국에 대중 포퓰리즘이 부상했는데, 이 또한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코로나19가 부실한 리더십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보다 코로나19 대응이 훨씬 부족했던 게 사실이며, 이 부정적 이미지를 대선에서 일소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ye1@yna.co.kr

-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2001266>

---

# 최희남 KIC 사장 "ESG, 일시적 유행 아냐...근본적·필수적 접근법"

윤 임하람 기자 | 승인 2020.11.09 15:36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사장은 9일 서울시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2020 세계경제연구원·KB 금융그룹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사장은 "ESG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다"며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매우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KIC의 투자 전반에 ESG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스투어드십 원칙을 수립 및 공표, ESG를 전체 자산군과 투자 프로세스에 적용, 지난해 우리 정부가 발행한 녹색 및 지속가능채권 발행 참여 등 ESG 투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사장은 "다양한 자산군과 방대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유니버설 투자자'인 국부펀드와 연기금들은 장기적인 수익률 관리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투자대상 기업들의 경제적 영향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ESG에 관한 가장 강력한 드라이버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IC 역시 ESG를 고려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스투어드십 원칙의 제정 이후 주주 권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rl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3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 국민연금, 2022년까지 운용자산 절반에 ESG 적용

김 진정호 기자 | 승인 2020.11.09 18:56

(서울=연합뉴스) 진정호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오는 2022년까지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투자 기준을 적용하는 자산군 규모를 전체의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9일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22년까지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규모가 기금 전체 자산에서 약 50%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2021년부터 ESG 통합전략을 국외 주식과 국내 채권 자산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ESG 평가 기준이 "현재 국내 주식 액티브 직접 운용자산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올해 안에 국내 주식 직접 운용 전 자산에 ESG 통합전략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직접 운용 규모는 71조6000억원이며 이는 기금 전체 자산의 약 10%에 해당한다.

김 이사장은 책임투자를 국내외 주식 자산군과 국내외 채권 자산군뿐만 아니라 회사채에까지 적용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는 166조원, 국내 채권 투자 규모는 322조원에 이른다. 김 이사장 발언대로라면 ESG 기준이 적용된 국민연금의 투자 규모는 오는 2024년이면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jhjin@yna.co.kr](mailto:jhji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8시 5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 컨퍼런스 축사하는 반기문 위원장

기사입력 2020-11-09 09:00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가능

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09.

kkssmm99@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10173854>

---



# 컨퍼런스 축사하는 반기문 위원장

기사입력 2020-11-09 09:00



[서울=뉴스시스] 고승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09.

kkssmm99@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스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스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공감언론 뉴스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10173848>



# 컨퍼런스 축사하는 반기문 위원장

기사입력 2020-11-09 09:00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09.

kkssmm99@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10173847>

---



# 컨퍼런스 축사하는 반기문 위원장

기사입력 2020-11-09 09:00



[서울=뉴스시스] 고승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09.

kkssmm99@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스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스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공감언론 뉴스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10173855>

## 컨퍼런스 축사하는 반기문 위원장

등록 2020-11-09 09:00:52



[서울=뉴스시스] 고승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09. kkssmm99@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퍼런스 축사하는 반기문 위원장

등록 2020-11-09 09:00:52



[서울=뉴스시스] 고승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가능

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09. kksmm99@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퍼런스 축사하는 반기문 위원장

등록 2020-11-09 09:00:5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09. kksmm99@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퍼런스 축사하는 반기문 위원장

등록 2020-11-09 09:00:52



[서울=뉴스시스] 고승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가능

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09. kksmm99@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퍼런스 축사하는 반기문 위원장

등록 2020-11-09 09:00:5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09. kkssmm99@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퍼런스 축사하는 반기문 위원장

등록 2020-11-09 09:00:5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가능

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09. kksmm99@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등록 2020-11-09 09:29:52



[서울=뉴스시스] 고승민 기자 =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11.09. kkssmm99@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등록 2020-11-09 09:29:52



[서울=뉴스시스] 고승민 기자 =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11.09. kksmm99@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기문 위원장 "바이든 당선, 미국 파리기후협약에 돌아온다는 것"

기사입력 2020-11-09 15:23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주최 콘퍼런스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대중국 정책 강경기조 바뀌지 않을 듯"



[서울=뉴스시스] 고승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09.kkssmm99@newsis.com

[서울=뉴스시스] 신호령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전 유엔 사무총장)은 9일 "조 바이든이 당선된 것은 미국이 파리기후협약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리라는 것이다.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파리기후협약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맺은 협약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에 각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공식 탈퇴 선언을 했으며, 이달 4일 탈퇴가 공식화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내년 1월20일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반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비판때문에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다"며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결정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기후변화 노력에도 많은 후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전에도 줄곧 해왔던 이야기"라며 "우리는 기후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코로나와 기후 변화는 글로벌한 이슈이고, 다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 당선이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의 회복은 장기간의 여정이 될 것이다. 단순한 재건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기후변화 노력을 적절히 해왔으면 코로나 상황도 이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한국은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로서 기후노력 변화에 부진해서는 안된다. 첨단기술과 AI(인공지능)가 있는 한국이 기후변화의 선두주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시스] 고승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는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을 주제로 열렸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그룹인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중국 강경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컨퍼런스에 영상으로 참석한 슈워츠먼 회장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 같다"며 "미국과 중국의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비슷한 시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말이 다소 부드러워질 것 같다"며 "도발을 안한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해도 정책 자체는 비슷하게 유지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슈워츠먼 회장의 영상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이전에 녹화됐다.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무부 장관)은 "트럼프는 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끝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만행과 실패는 앞으로 몇 년간 여파가 있을 것이다. 입법·행정·사법부의 권력이 민주주의 중심 축이지만 권력이 악용되면서 미국에 악영향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는 과거 대공황 아래 가장 큰 충격으로 향후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과 국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팬데믹 위기 여파로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 키워드는 효율성 극대화에서 복원력 강화로 바뀌고 있다. 기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도 더욱 포용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 K-Artpark, 미술품 구매의 즐거운 시작
-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10175087>

---



#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내후년 책임투자 자산군 50%로 확대"

기사입력 2020-11-09 13:35

국내외 주식·채권에 회사채 포함  
"바이든 시대 ESG 더욱 중요해져"



[서울=뉴스시스]류병화 기자 = 왼쪽부터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신성환 홍익대학교 교수,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좌측 화면은 헨리 페르난데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2020.11.09. hwahwa@newsis.com

[서울=뉴스시스] 류병화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오는 2022년까지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규모를 자산의 약 50%로 확대할 것이라고 9일 강조했다. 책임투자는 국내외 주식 자산군과 국내외 채권 자산군 뿐만 아니라 회사채에까지 적용된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 국제 컨퍼런스에서 '세션2: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의 뉴 트렌드와 공적 기금의 역할' 기조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은 먼저 내년부터 ESG 통합전략을 해외주식과 국내채권 자산에 적용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 국내주식 액티브 직접 운용자산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올해 안에 국내주식 직접 운용 전 자산에 ESG 통합전략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주식 직접 운용 규모는 71조6000억원이며 이는 기금 전체 자산의 약 10%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과의 대화 주제를 환경과 사회 이슈로 확대하고 대상 자산을 해외주식으로 넓혀나갈 방침이다. 내후년부터는 주식과 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평가 때 책임투자 요소를 반영한다.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석탄 관련 투자에 대한 대내외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에 따라 책임투자와 주주활동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고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5개 위탁운용사를 통해 약 5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달 위탁운용사 4개사를 추가 선정하는 등 책임투자형 위탁펀드의 운용 규모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환경오염, 근로자 사망사고, 공정경쟁 저해 등 49건의 ESG 컨트러버설 이슈에 대해 중대성 평가를 수행했고 12개 기업의 ESG 평가점수와 등급에 반영했다.

지난해 767회의 주주총회에서 3278건의 안건에 대해 찬성 2647건(80.75%), 반대 625건(19.07%)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올 5월 기준으로 710회의 주주총회에서 3140건의 안건에 대해 찬성 2633건(83.85%), 반대 501건(15.96%)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부터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보유분이 없는 국내주식에 대해 위임요건을 충족한 20개의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했다"면서 "올 5월 기준 국민연금이 행사한 안건 중 42%를 위탁운용사가 행사했다"고 전했다.

헨리 페르난데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며 ESG가 더 중요해졌다"면서 "지속가능한 투자와 금융이 촉진되는 역사적인 해로, 변화를 빠르게 수용해야 선발주자로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ESG 평가체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ESG는 광범위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보고 있어 수립하기에 어렵지만 미 바이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할 것"이라며 "ESG 평가는 점차 표준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은 이날 "KIC는 ESG를 고려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스튜어드십 원칙의 제정 이후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주주권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해외투자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ESG 전략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책임투자 기회를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SG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운용전략을 수립해 그린 뉴딜 시대에 걸맞는 투자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4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ESG 전략 펀드에 투자했으며 현재 KIC의 주식 벤치마크를 상회해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작년 6월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추진해 성공한 녹색, 지속가능채권 발행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환경과 사회적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 K-Artpark, 미술품 구매의 즐거운 시작
-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10174671>

---



#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대중 강경기조 바뀌지 않을 듯"(종합)

기사입력 2020-11-09 16:58 최종수정 2020-11-09 21:32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주최 콘퍼런스  
스펜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과거 복귀 어려워"  
반기문 "바이든 당선, 美 파리기후협약에 돌아오는 것"



[서울=뉴스시스] 고승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09.kkssmm99@newsis.com

[서울=뉴스시스] 신호령 기자 = 세계 최대 사모펀드 그룹인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은 9일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 같다"며 "미국과 중국의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비슷한 시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슈워츠먼 회장은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 영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슈워츠먼 회장의 영상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이전에 녹화됐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중국 강경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슈워츠먼 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말이 다소 부드러워질 것 같다"며 "도발을 안한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해도 정책 자체는 비슷하게 유지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슈워츠먼 회장은 또 "미국 경제가 반등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현재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연말이나 연초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허가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말이 되면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원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내년 말에서 2022년 초 정도에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2001년)인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교수도 "바이든 당선인은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미 상당 부분이 변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해도 과거 정상상태로 복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시스] 고승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09.kkssmm99@newsis.com

스펜스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단언하기 어렵지만, 기존 국가와의 파트너십 강화에 힘쓸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 중심으로 국제관계가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코로나 충격으로 경제 중심이 방역 성공국가로 넘어갔다. 한국·중국·일본·대만 등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빠른 회복을 보인 국가"라고 덧붙였다.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무부 장관)은 "트럼프는 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끝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만행과 실패는 앞으로 몇 년간 여파가 있을 것이다. 입법·행정·사법부의 권력이 민주주의 중심 축이지만 권력이 악용되면서 미국에 악영향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전 유엔 사무총장)은 "조 바이든이 당선된 것은 미국이 파리기후협약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리라는 것이다.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리기후협약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맺은 협약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에 각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공식 탈퇴 선언을 했으며, 이달 4일 탈퇴가 공식화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내년 1월20일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반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비판때문에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다"며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결정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기후변화 노력에도 많은 후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전에도 줄곧 해왔던 이야기"라며 "우리는 기후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코로나와 기후 변화는 글로벌한 이슈이고, 다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 당선이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시스] 고승민 기자 =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11.09.kkssmm99@newsis.com

반 위원장은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은 장기간의 여정이 될 것이다. 단순한 재건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기후변화 노력을 적절히 해왔으면 코로나 상황도 이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한국은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로서 기후노력 변화에 부진해서는 안된다. 첨단기술과 AI(인공지능)가 있는 한국이 기후변화의 선두주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을 주제로 열렸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는 과거 대공황 아래 가장 큰 충격으로 향후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과 국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팬데믹 위기 여파로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 키워드는 효율성 극대화에서 복원력 강화로 바뀌고 있다. 기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도 더욱 포용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 K-Artpark, 미술품 구매의 즐거운 시작
-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10175429>

---



# 스펜스 교수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과거 복귀 어려워"

기사입력 2020-11-09 16:38

##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주최 콘퍼런스



[서울=뉴스시스] 고승민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09.kkssmm99@newsis.com

[서울=뉴스시스] 신호령 기자 = 노벨 경제학상(2001년) 수상자인 마이클 스펀스 뉴욕대 교수는 9일 "조 바이든 당선인은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상당 부분이 변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해도 과거 정상상태로 복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에 영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스펜스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단언하기 어렵지만, 기존 국가와의 파트너십 강화에 힘쓸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 중심으로 국제관계가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 중심이 방역 성공국가로 넘어갔다. 한국

중국·일본·대만 등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빠른 회복을 보인 국가"라고 덧붙였다.

이 콘퍼런스에 영상으로 참석한 세계 최대 사모펀드 그룹인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도 "한국이 코로나에 잘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슈워츠먼 회장은 "미국 경제가 반등하고 있으나 코로나가 현재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연말이나 연초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허가가 이뤄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021년 말이 되면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원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내년 말에서 2022년 초 정도에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시스] 고승민 기자 =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11.09.kkssmm99@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 K-Artpark, 미술품 구매의 즐거운 시작
-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10175357>

朝鮮日報

# 세계 최대 사모펀드 회장 "바이든의 중국 정책, 트럼프와 차이 없을것"

기사입력 2020-11-09 10:43 최종수정 2020-11-09 11:28



스티븐 A. 슈워츠먼 블랙스톤그룹 회장 겸 CEO./로이터연합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그룹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이 "바이든 당선 이후에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입장이 혁명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은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연설은 미국 대선이 치러지던 지난 3일(현지시각) 녹화돼 대선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슈워츠먼 회장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가정하면서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중국 관련) 바뀌는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보다 조금 더 말을 부드럽게 하고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다만 정책 자체는 유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과 입장이 혁명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슈워츠먼 회장은 오랜 트럼프 지지자로 유명하다. WSJ(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그는 이번 대선에서 친 트럼프 혹은 친공화당 정치활동위원회에 2700만 달러(약 300억원)를 기부했다.

그는 최근 미국과 중국 G2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은 예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지난 40년간 관세장벽의 보호를 받으며 급성장해왔고, 이제 1인당 GDP(국내총생산) 1만1000달러 수준이 되어 명실상부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 양대 파워가 됐는데 여전히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슈워츠먼 회장은 "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자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대대적인 방어벽을 사용해왔다. 미국과 한국 등이 제공하는 기술로 중국이 성장해왔는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 경제가 개방돼 있기 때문에 중국도 개방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해결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은 세계 경제의 35~40%를 차지하고, 이렇게 양대 산맥을 이루는 두 국가가 (장기적으로도) 디커플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이미 교류가 상당하기 때문에 상대 국가가 원하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자국 이해와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타협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두 나라는 AI(인공지능) 세계 표준을 정하는 일 등 다가올 기술 문제와 관련해 서로를 필요로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정 기자 ejkim@chosun.com]

- ▶ 네이버에서 조선일보 받아보기
- ▶ 조선일보 로그인하고 영화 공짜로 보자!
- ▶ '메가 온라인 콘퍼런스, ALC' 지금 등록하세요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3&aid=0003574758>

---

朝鮮日報

# ‘역사의 종언’ 후쿠야마 “트럼프 낙선, 경제·균형 작동 한다는 증거”

기사입력 2020-11-09 11:43 최종수정 2020-11-09 12:17

“트럼프와 공화당 영향력, 오랜 기간 계속될 것”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조선일보DB

“트럼프의 낙선은 미국에 경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역사의 종언’을 쓴 국제정치 전문가인 프랜시스 후쿠야마(Fukuyama) 스탠퍼드대 교수가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화상을 통해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트럼프의 낙선, 바이든 당선은 필리핀 두테르데와 브라질 볼소나로, 인도 모디 등 (대중영합 정치로) 트럼프를 모방하던 각국 지도자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봤던 전문가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막판 공화당 표가 결집해 교외 여성들과 라틴 히스패닉 유권자들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공화당과 트럼프의 영향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이 오랜 기간 지지성향 대립과 양극화로 시달려왔다면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위생수칙조차 정치적 이슈로 취급되면서 미국이 코로나 대응에서 참패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미국의 정치적 분열을 중국과 러시아가 이용해왔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바이든이 당선돼 동맹국과의 관계가 강화·회복되겠지만, (트럼프 집권 이전인) 2016년 이전으로는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이든이 미국을 완전히 장악한 것은 아니며, 트럼프와 공화당의 힘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은정 기자 ejkim@chosun.com]

- ▶ 네이버에서 조선일보 받아보기
- ▶ 조선일보 로그인하고 영화 공짜로 보자!
- ▶ '메가 온라인 콘퍼런스, ALC' 지금 등록하세요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3&aid=0003574780>

---



# “美中 갈등 지속될 것...친환경 기조, 글로벌 경제에 영향”

기사입력 2020-11-09 18:26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美대선 이후 세계경제



© News1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제 관계가 과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석좌교수)

“바이든 당선 이후에도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은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더라도 미중의 갈등 구도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친환경·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내건 ‘바이드노믹스’에 따라 세계 각국 경제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됐다.

## ● “對中 정책에 혁명적 변화 없을 것”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서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의 경제교사’로도 불리는 슈워츠먼 회장은 특히 기술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그는 “중국은 자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 한국 등이 공급한 방화벽을 사용하는 등 외부 선진 기술로 성장을 이뤘다”며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건 공평하게 경제를 개방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관세장벽 보호를 받으며 급성장한 결과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이 됐는데도 여전히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견해다.

다만 그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의 35~40%를 차지하고 이미 양국의 교류가 상당하기 때문에 두 국가가 디커플링(탈동조화)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기후변화, 보건, 인공지능(AI) 등 세계표준이 필요한 분야에서 타협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펜스 석좌교수도 미중 관계와 관련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은 국내외적으로 아시아 국가의 부상, 디지털 기술 발전 등 복잡한 환경에 직면해 무역 투자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상원의 조합이 바이든노믹스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지만 민주당이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6년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 “바이든의 친환경 기초, 글로벌 경제에 영향”

전문가들은 바이든노믹스가 앞세운 친환경 기초가 글로벌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헨리 페르난데즈 회장은 이날 온라인 대담에서 “바이든 당선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더 중요해졌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며 바이든의 국제공조 강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임기 4년 간 2조 달러(약 2300조 원)를 투입해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친환경·재생에너지 정책이 시행되면 배터리와 태양광, 전기차 등 관련 품목의 미국 내 수요가 확대돼 국내 관련 기업들도 수출 확대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세계 기후 변화 대응을 강조하며 2025년까지 ‘탄소 조정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국내 기업에 부담

이 될 수 있다. 탄소 조정세는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업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환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시설 확충 비용이나 추가 관세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 ▶ 증발에 운다...그렇게 부모가 되지 못했다
- ▶ “말이 안 통해”... 극과 극이 만난다면?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0&aid=0003319425>

---



# “美, 中과 첨단기술 갈등 지속” “ESG 더 중요해져”

기사입력 2020-11-10 03:02

## [바이드노믹스]美전문가들이 보는 향후 세계경제

**바이드노믹스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p>민주당 행정부가 중국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입장과 태도도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는다.</p>  <p>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그룹 회장</p>	<p>미국,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2016년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는다.</p>  <p>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p>	<p>'과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아시아 국가의 부상, 디지털 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p>  <p>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석좌교수</p>	<p>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더 중요해졌다.</p>  <p>헨리 페르난데스 MSCI 회장</p>
--	---	---	---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제 관계가 과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석좌교수)

“바이든 당선 이후에도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은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그룹 회장)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더라도 미중의 갈등 구도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친환경·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내건 ‘바이드노믹스’에 따라 세계 각국 경제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 ○ “對中 정책에 혁명적 변화 없을 것”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콘퍼런스에서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사전 녹화 연설과 온라인 대담 등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 바이드노믹스의 친환경 관련 정책 및 한국 경제 영향

주요 정책	내용	한국 경제 득실
<b>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년간 2조 달러 투입</li> <li>건물 400만 채, 주택 200만 채 에너지 고효율 도입</li> <li>태양광 패널 5억 개 설치</li> </ul>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관련 품목 미국 내 수요 확대
<b>전기차 인프라 확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충전소 50만 개 설치 등</li> </ul>	
<b>국제 공조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li> </ul>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관세 부과 우려
<b>탄소조정세 도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석에너지 사용량 따라 세금 부과</li> <li>이산화탄소 과다 배출 품목 추가 관세</li> </ul>	

자료: 한국무역협회 등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교사’로도 불리는 슈워츠먼 회장은 특히 기술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그는 “중국은 자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 한국 등이 공급한 방화벽을 사용하는 등 외부 선진 기술로 성장을 이뤘다”며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건 공평하게 경제를 개방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관세장벽 보호를 받으며 급성장한 결과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는데도 여전히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견해다.

다만 그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의 35~40%를 차지하고 이미 양국의 교류가 상당하기 때문에 두 국가가 디커플링(탈동조화)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기후변화, 보건, 인공지능(AI) 등 세계표준이 필요한 분야에서 타협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펜스 석좌교수도 미중 관계와 관련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디지털 기술 부문에서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은 아시아 국가의 부상, 디지털 기술 발전 등 복잡한 환경에 직면해 무역 투자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상원의 조합이 바이드노믹스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지만 민주당이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2016년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 “바이든의 친환경 기조, 글로벌 경제에 영향”

전문가들은 바이드노믹스가 앞세운 친환경 기조가 글로벌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헨리 페르난데스 회장은 “바이든 당선으로 ESG(환

경·사회·지배구조)가 더 중요해졌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며 바이든의 국제공조 강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임기 4년간 2조 달러(약 2300조 원)를 투입해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친환경·재생에너지 정책이 시행되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관련 품목의 미국 내 수요가 확대돼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관련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며 2025년까지 '탄소 조정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탄소 조정세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업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환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시설 확충 비용이나 추가 관세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 기업들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 ▶ 증발에 운다...그렇게 부모가 되지 못했다
- ▶ “말이 안 통해”... 극과 극이 만난다면?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0&aid=0003319568>

---

## 세계일보

---

# '2020 ESG 글로벌 서밋'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입력 2020-11-09 16:39:35, 수정 2020-11-09 20:33:16

---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반기문(앞줄 가운데)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매일경제**

# 국민연금, 2년내 운용기금 50% ESG에 투자

기사입력 2020-11-09 17:40 최종수정 2020-11-09 20:11

**김용진 이사장 콘퍼런스서 밝혀****2024년 해당자산 500조 전망****ESG투자 아직 적용 안된  
해외주식·국내債에 집중**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로드맵에 따라 투자가 실행된다면 ESG 요소를 반영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액은 5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도 ESG 투자 확대를 기정사실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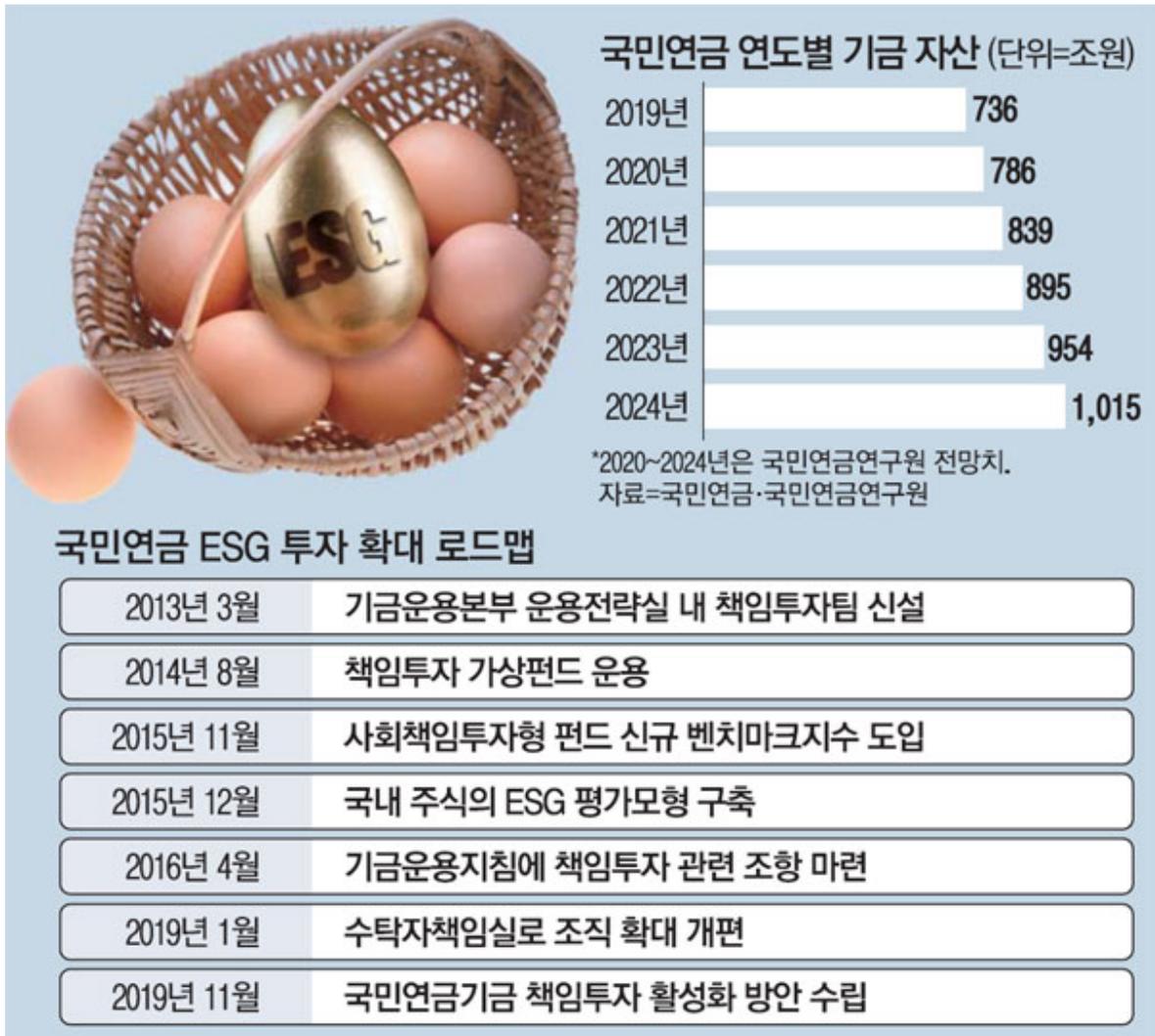
미국 대선에서 친환경, 탄소 제로 등 공약을 내세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연기금과 국부펀드 등 글로벌 자본 시장 큰손은 물론 개미투자자들도 ESG 관련 투자를 크게 늘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9일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은 "최근 들어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유엔 책임투자원칙기구) 자료에 따르면 ESG를 고려하는 책임투자 자산 규모는 PRI 제정 첫해인 2006년 6조5000억달러에서 올해 현재 103조4000억달러로 15년 만에 16배 성장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ESG 관련 투자 확대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그는 "2022년까지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규모가 기금 전체 자산에서 약 50%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2021년부터 ESG 통합전략을 국외 주식과 국내 채권 자산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고 있는 국내 주식 규모는 71조6000억원이다. 기금 전체 자산 중 10% 수준이다. 이 중 국민연금이 실제 ESG 전략을 활용하는 자산은 27조원에 그친다. 국내 주식 위탁운용 자산은 약 60조원으로 ESG 투자는 5조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ESG 투자 확대는 ESG 요소를 기금의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한다는 의미"라며 "작년 말 기준으로 32조원이지만 올해부터 ESG 요소 반영을 확대해 2022년에는 전체 기금자산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앞으로 ESG 투자를 확대할 부분은 김 이사장이 언급했듯이 국외 주식과 국내 채권 투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외 주식 투자 규모는 166조원, 국내 채권 투자 규모는 322조원에 이른다. 김 이사장 발언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면 국민연금의 ESG 관련 투자는 2024년 5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희남 KIC 사장도 이날 콘퍼런스에서 "현재 모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ESG라는 화두 앞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ESG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운용 전략을 수립해 그린 뉴딜 시대에 걸맞은 투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기금자산의 절반을 ESG 전략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큰

변화로 유럽·미국의 연기금 투자 트렌드와 부합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가 곧 발표할 '탄소효율 그린뉴딜 지수'를 보면 투자 종목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지웅 기자]

- ▶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 ▶ 궁금한 제조과정 영상으로 보세요. '이렇게 만들죠'
- ▶ 매일매일 색다른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하세요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9&aid=0004691915>

---

**매일경제**

#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 "바이든의 치유와 단합, 한국에도 꼭 필요"

기사입력 2020-11-09 17:27 최종수정 2020-11-09 19:51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이 본 바이든 당선인

사무총장시절 바이든과 교류  
델라웨어大 연설 부탁받기도

"당선인은 매우 격조 높은 분  
어느 회의든 좌장역할 도맡아"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주최 국제 콘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에 가장 필요한 가치로 '치유'와 '단합'을 꼽았습니다. 한국에도 꼭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전 유엔 사무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 축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국민 연설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위원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평소보다 톤을 높여 연설했

다"며 "에너지와 열정을 보여준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반 위원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당선인과 자주 교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바이든 당선인과 가장 친분이 많은 인사로 꼽힌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의 연설이 반 위원장에게 더욱 각별히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반 위원장의 유엔 사무총장 임기는 2007~2016년으로 이 기간 중 8년이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와 겹친다. 또 지난 9월에는 바이든 당선인이 모교인 델라웨어대에 '바이든 공공정책·행정대학 교'가 설립되자 반 전 총장에게 영상 연설을 부탁하기도 했다.

반 위원장은 이날 콘퍼런스 연설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 치유하고 단합해야 할 때'라고 했는데, 한국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시민들이 좌우로 나뉘어 술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바이든 당선인은 믿음, 민주주의, 존엄성, 인간성 등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마지막으로 용기를 강조했다는데, 이는 우리가 수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 믿음과 용기가 사회에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한 발자국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 위원장은 바이든 당선인을 '격조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부인과 아들이 사망하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두 번 고배를 마시는 등 고생을 많이 한 분이지만 옆에서 지켜보면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상당히 격조 높은 분이고 어느 회의에서나 좌장 역할을 도맡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좌종을 휘어잡는 능력과 조정 능력이 탁월한 인물이라는 취지다.

반 위원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천명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했다. 그는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앞으로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오리라는 것이므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약에서 탈퇴한 것과 관련해서는 "역사에 잘못된 판단을 남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관계의 동반자적 성격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반 위원장은 "미국은 한국이 10위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줬고, 한국전쟁 때도 많은 미군이 목숨을 바쳤다"고 했다. 특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모든 단계에서 미국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한국의 성공과 발전이 우리 힘만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이날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 "많은 한국인은 각하가 한국과 한국인의 진정한 친구라고 믿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한미 동맹은 피로 굳게 맺은 군사동맹에서 시작돼 이제 포괄적 가치동맹으로 발전했으며, 각하의 리더십 아래 앞으로 더욱 공고한 동맹으로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이루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 반기문 "바이든 당선은 파리기후협약에 돌아온다는 것"

기사입력 2020-11-09 10:24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은 오늘(9일) "미국이 앞으로 파리기후협약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이므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공동주최 국제콘퍼런스 축사에서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앞으로 파리기후협약 협상 테이블로 오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를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가능한 기후변화의 파괴성을 볼 수 있었다"며 "공중보건 위험 증가, 공급망 충격, 보험사와 인덱스펀드 위험 증대, 경제위기 장기화 등 문제가 대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는 물론 영리기업도 기업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영위해 가지 않으면 어떤 미래가 그려질지 상상해 봤을 것"이라며 "기후변화는 우리가 모두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글로벌 이슈이며, 다자적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위원장은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서 기후변화 노력이 지금처럼 부진해서는 안 된다"며 "첨단기술과 인공지능(AI)이 일어나는 한국과 같은 강국에서 노력하고, 기후변화 선두주자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콘퍼런스는 '2020 지속가능경영(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한국경제

# "바이든式 미·중 갈등완화, 美 경기부양책 기대접어야"

기사입력 2020-11-09 13:52 최종수정 2020-11-09 14:00

---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참석자들이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의 화상 기초연설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대(對) 중국 정책이 혁명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그룹 회장)

"미국 공화당이 상원 과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與小野大)' 양상이 나타날 것인 만큼 바이든이 구

상한 경기부양책 등 경제정책이 제대로 전개될지 미지수입니다."(필립 힐데브랜드 블랙록 부회장)

9일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이라는 주제로 연 국제 콘퍼런스에서 세계 경제·외교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 직후에도 미·중 대결구도는 이어질 것으로 봤다.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경기부양책 등 바이든의 경제정책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美, '관세 무기화'는 자제할 것"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그룹의 슈워츠먼 회장은 "작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은 미국이 6만5280만달러, 중국은 1만260달러였다"며 "스스로 가난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개방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만큼 갈등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경제 규모의 35~40%를 차지하는 미·중 간 디커플링(탈동조화)은 불가능하다"며 "양국이 이해하고 타협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할 것인 만큼 양국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과거처럼 악화일로로 치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줄릭 전 세계은행 총재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 정부처럼 관세를 무기화하는 것은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로 통하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변화해 다자주의를 복원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프란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바이든은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등 미국 외교정책의 신속한 복원에 힘쓸 것"이라며 "미국이 세계 외교가에서 목소리를 다시 높일 것"이라며 전망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필립 힐데브랜드 부회장은 "미국 공화당이 상원 과반석을 차지하면서 '여소야대(與小野大)'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공화당 중심의 의회 때문에 정책의 급진적 변화는 없을 것이고 경제정책도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동아시아, 세계 경제 회복세 주도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세계 경제는 2022년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슈워츠먼 회장은 "올해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고 내년 말이면 원한다면 누구든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충격이 미미해지는 2022년부터 경제가 정상궤도에 들어설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역에 성공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 속도가 두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석좌교수는 "코로나19 수습에 성공한 한국과 대만, 홍콩, 중국, 싱가포르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도 음식·관광·항공업 등 대면업종은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외부서 달러를 조달하는 저개발국은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핵심 투자흐름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세계 최대 증시 지수 산출회사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헨리 페르난데즈 회장은 "바이든이 당선 되면서 그가 주창한 민주주의 보호, 인명보호, 다양성과 포용성, 다문화사회 등 ESG 중요성이 한층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71조원 규모의 국내 주식 투자 과정에서 900 개 기업에 대해 ESG를 평가한 직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익환/강진규 기자 lovepen@hankyung.com

- ▶ 애플·테슬라 지금 사도 될까? 궁금하면 '해주라'
- ▶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5&aid=0004446373>

---

## 한국경제

# "바이든 정부의 中 정책, 혁명적 변화 없을 것"

기사입력 2020-11-09 17:10 최종수정 2020-11-10 02:01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 주최 'ESG 글로벌 서밋' 국제 콘퍼런스

블랙스톤 슈워츠먼 회장

"美, 中인권문제 태도 안 바꿀 듯"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

"美, 외교정책 신속 복원 힘쓸 것"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은 9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참석자들이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그룹 회장의 화상 기초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이 혁명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그룹 회장)

세계 경제·외교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크게 낮추지 않아 미·중 대결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9일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이란 주제로 연 국제 콘퍼런스에서다.

“美, '관세 무기화'는 자제할 것”

세계 최대 사모펀드(PEF) 블랙스톤그룹의 슈워츠먼 회장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바이든 당선 후에도 미 의회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탈동조화(디커플링) 문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관세 정책 대신 양국의 호혜적 정책 등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혁명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과거처럼 악화일로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 정부처럼 관세를 무기화하는 것은 자제할 것”이라며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혁신과 국가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로 통하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은 다자주의로 복원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바이든은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등 미국 외교 정책의 신속한 복원에 힘쓸 것”이라며 “미국이 세계 외교가에서 목소리를 다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필립 힐데브랜드 부회장은 “미국 공화당이 상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바이든이 구상한 경기부양책 등 경제정책이 제대로 전개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

## “ESG 투자, 수익률 성과도 좋아”

---

세계 경제는 2022년에서야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슈워츠먼 회장은 “올해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고 내년 말이면 누구든 원한다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2022년부터 세계 경제가 정상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경제 회복은 지역 및 업종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석좌교수는 “코로나19 수습에 성과를 보인 한국과 대만, 홍콩, 중국, 싱가포르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도 음식·관광·항공업 등 대면 업종은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핵심 투자 흐름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헨리 페르난데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회장은 “바이든이 주창한 민주주의 보호, 인명 보호, 다양성, 포용성, 다문화사회 등 ESG 중요성이 각계에서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강진규 기자 [lovepen@hankyung.com](mailto:lovepen@hankyung.com)

- ▶ 애플·테슬라 지금 사도 될까? 궁금하면 '해주라'
- ▶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많은 기업에 '파괴적 충격' 줄 ESG...금융사 투자가 산업 재편까지 좌우"

기사입력 2020-11-09 17:10 최종수정 2020-11-09 17:30

## "코로나 사태·초저금리 기조 ESG 확산에 기폭제 될 것"

"은행 등 금융회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입니다. 투자금을 어디에 투입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미래 세계와 경제가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죠."

피유시 굽타 싱가포르개발은행(DBS) 최고경영자(CEO)는 9일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주최 '2020 ESG 글로벌 서밋'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인 DBS는 2024년까지 200억달러를 지속가능 산업에 투자하는 등 ESG에 일찌감치 많은 관심을 기울인 금융사로 꼽힌다. 굽타 CEO는 "ESG와 관련한 지표 측정, 회계 등에 완벽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은행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은행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볼 때 ESG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훨씬 적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와 초저금리 기조가 ESG 확산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콩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 프리미어 파트너스의 레베카 추아 매니징 파트너는 "기술 붐에 힘입어 ESG 펀드가 좋은 실적을 내 왔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다"고 전했다.

호주 건설업계 퇴직연금기금 CBUS의 크리스티안 포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한국이 선언한 '탄소 중립' 목표는 호주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ESG가 많은 기업에 '파괴적 충격'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크 CIO는 "청정에너지가 안정화에 접어들면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지만, 아직 많은 자본 투자를 요구하는 단계"라며 "저금리 상황이 에너지 전환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ESG 투자가 국가별 상황을 외면하고 획일적인 잣대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굽타 CEO는 "탄소 배출 산업에 무조건 자금 공급을 중단하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은 가장 쉽지만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운송, 항공, 농업 등 광범위한 산업이 탄소와 연관돼 있다"며 "이들 산업이 식량,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사회에 미치는 효과와 탄소 배출량을 균형 있게 고려해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 한국경제

## ESG에 쫓긴 국민연금..."2년내 자산 50% 투자"

기사입력 2020-11-10 03:04

김용진 이사장 계획 발표  
최희남 사장 "KIC도 투자 확대"



김용진 이사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22년까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반영한 자산을 전체 자산의 50%가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주최 '2020 ESG 글로벌 서밋'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금 투자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년부터 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때도 책임 투자 요소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 직접 운용한 국내 주식은 71조6000억 원어치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ESG 요소를 반영한 투자는 26조9000억 원 규모"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사에 맡긴 위탁운용 주식 가운데 ESG 투자는 5조1000억 원이다. ESG를 고려한 자산이 현재 36조 원가량인 국민연금이 앞으로 전체 기금의 절반 정도인 400조~500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최희남 사장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도 “ESG를 고려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며 “글로벌 ESG 전략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책임 투자 기회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외국 금융·투자사들도 ESG에 큰 관심을 보였다. 호주 건설업계 퇴직연금기금 CBUS의 크리스티안 포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한국이 선언한 ‘탄소 중립’ 목표는 호주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ESG가 많은 기업에 ‘파괴적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피유시 굽타 싱가포르개발은행(DBS) 최고경영자(CEO)는 “은행 등 금융회사는 ESG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라며 “투자금을 어디에 투입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미래 세계와 경제가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인 DBS는 2024년까지 200억달러를 지속 가능 산업에 투자하는 등 ESG에 일찌감치 많은 관심을 기울인 금융사로 꼽힌다.

임현우/김익환 기자 tardis@hankyung.com

- ▶ 애플·테슬라 지금 사도 될까? 궁금하면 '해주라'
- ▶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5&aid=0004446795>

---

한국경제

# [마켓인사이트]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올해 안에 국내 주식 액티브 운용에 ESG 통합전략 적용할 것"

기사입력 2020-11-10 10:12

---

<<이 기사는 11월10일(07:0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올해 안에 71조 6000억원 규모의 국내 주식 직접 운용 전 자산에 ESG통합 전략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는 기금 전체 자산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9일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 국제 컨퍼런스에서 '세션2: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의 뉴 트렌드와 공적 기금의 역할' 기조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SG통합이란 ESG 요소를 기업이나 자산의 재무분석 과정에 체계적이고 명시적으로 융합시켜 투자

의사 결정 단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ESG평가체계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에 적용하는 셈이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2022년까지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규모는 국민연금 전체 자산의 50%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주식 일부에 그치고 있는 책임투자의 범위를 올해 국내주식 액티브 운용 전체, 내년에는 해외주식과 국내채권으로 확대하고, 2022년부터는 주식 및 채권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에도 책임투자 요소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도 이날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투자 프로세스 전반에 ESG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ESG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기후변화나 코로나 팬데믹 같은 문제에 경제주체들이 대응하는 매우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사장은 "KIC 역시 ESG 전략 펀드를 더욱 확대해 책임투자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내 해외투자를 수행하는 공공기금과 함께 해외투자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ESG 전략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다양한 투자사례를 중심으로 책임투자 기회를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 ▶ 애플·테슬라 지금 사도 될까? 궁금하면 '해주라'
- ▶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5&aid=0004446952>

---

한국경제

# [마켓인사이트]필립 힐데브란트 블랙록 부회장, "ESG 인덱스에 포함되느냐가 향후 기업 가치 좌우할 것"

기사입력 2020-11-10 10:13

세계경제연-KB금융 ESG 국제컨퍼런스서 기조연설

ESG와 실적 개선간의 상관관계 뚜렷  
블랙록, 연내 모든 액티브 투자에 ESG요소 적용

"ESG 관련 ETF에 글로벌 자금 몰린다"  
"국가, 기업 차원에서 ESG 매력도 높여야"

<<이 기사는 11월10일(10:1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그 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ESG 관련 ETF(상장지수펀드)인덱스에 포함되는지가 향

후 기업 가치를 좌우할 것입니다."

필립 힐데브란트 블랙락 부회장(사진)은 9일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연 국제 컨퍼런스에서 '세션2: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의 뉴 트렌드와 공적 자금의 역할'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블랙록은 전체 운용자산(AUM) 규모가 7조 3000억 달러(약 82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다. 힐데브란트 부회장은 전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 출신으로 2012년부터 블랙록에 몸 담고 있다.

힐데브란트 부회장은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ESG 트렌드를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지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승자가 되는데 핵심 조건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향후 자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선 ESG요소를 접목한 ETF에 쓰이는 인덱스의 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대한 패시브 자금의 흐름 변화가 세계 경제의 지형도를 바꿔놓을 것이라란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의 기조연설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블랙록은 운용 자산 규모가 8조 달러를 바라보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다. 블랙록이 어떻게 ESG를 투자에 적용 중인지 설명해달라.

"ESG 개념은 지난 20년간 금융시장에 존재했다. 하지만 과거엔 그저 틈새 시장, 특정한 취향의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하는 투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몇년 간 ESG에서 커다란 변화들이 나타났다. ESG와 실적 개선은 양립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 금융계, 학계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양립 가능하다. 최근 몇 년간의 양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요소를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경우 기업의 실적이 개선된다는 점이 나타났다. 즉 ESG가치와 투자실적 개선이 이제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는 지속가능한지 여부가 투자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ESG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리스크 조정 기준으론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명목 실적조차 그렇다. 이는 여러분의 가치와 신념이 어떻든지간에 실적 개선을 위해서라도 ESG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인식 변화와 함께 블랙록도 변화하고 있다. ESG원칙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고객이 맡긴 자산의 운용에도 반영하고 있다.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는 지난 1월 연례 서한에서 ESG 요인을 자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블랙록은 대고객 관계, 내부 투자 프로세스, 주주로서의 역할 등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래리 핑크 CEO의 주주서한을 감명 깊게 읽었다. 이런 노선 전환이 실제 투자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CEO의 비전과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다른 맥락이 아닌가.

"첫째, ESG요소가 모든 액티브 상품에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적어도 올해 내 이르면 몇 주안에 블랙록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은 모두 투자 전반에 ESG요소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이들의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블랙록의 자체 펀드관리 시스템인 '알라딘'에 ESG요소가 적용된다.

둘째, 블랙록은 고객들에게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ETF를 제공할 것이다.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성향의 ESG인덱스를 고를 수 있을 정도로 그 폭이 넓을 것이다. 알파(초과수익)를 추구하는 상품에도 ESG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사모투자 시장도 마찬가지다.

셋째, 세계 최대의 대주주인만큼 의결권 행사 방식에도 변화를 줄 것이다. 기후 변화 등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다. ESG 가운데 S(사회)의 문제에도 관심이 크다."

▷지금까지는 ESG요소 가운데 E(환경)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고, 방금 S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와 S외에 G(거버넌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ESG시대 국가와 기업 차원의 거버넌스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지배구조 요소는 과거에도 이미 투자에 있어 중시되던 요소다. 지배구조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업, 고위 경영진에서 다양성이 확보된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낼 수 있는 결론이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와 아닌 국가간의 차이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각 국가의 방역 체계의 차이만해도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블랙록은 이미 한국 기업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블랙록은 삼성전자, 신한금융지주,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의 5% 이상 대주주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비교적 성공한 국가와 아닌 국가들의 사례를 보고, 그리고 그 점을 고려해 블랙록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국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식의 재조정 가능성도 있겠나.

"블랙록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매력적인 투자처라 생각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한국의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기업들의 ESG공시 의무 강화 등을 강조하는 등 주요 기관들이 ESG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고무적으로 다가온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고, 이 원칙에선 ESG요소가 중시된다. 이런 행보들이 전 세계적인 ESG투자 흐름과 맞물려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 기업들이 ESG관점에서 우수한 기업들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투자 환경도 더욱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블랙록의 포트폴리오 실적이나 유입 자본 현황으로 볼 때 우리는 지속가능성이 있는 인덱스가 많은 자본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규모는 지금도 우리 예상치를 넘어서고 있다. 블랙록이 만든 지속가능성 관련 ETF의 94%가 기존 ETF상품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뒀다. 비용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블랙록은 이런 ETF인덱스의 비용 절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ESG요소를 더 고려할 수록 더 많은 기업과 한국내 투자자산이 글로벌 ESG 인덱스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ESG상품 발행액이 늘어날 수록 그 수혜는 한국에 돌아갈 수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 ▶ **애플·테슬라 지금 사도 될까? 궁금하면 '해주라'**
- ▶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5&aid=0004446953>

---

# 국민연금, 2년내 운용자산 절반 ESG에 투자...김용진 이사장 경영철학 반영

김 이사장 컨퍼런스서 계획 발표  
위탁운용사 선정에도 책임투자 반영

김태림 기자 (ktael@ajunews.com) | 입력 : 2020-11-10 04:25 | 수정 : 2020-11-10 04:25



김용진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사진  
=국민연금공단 제  
공]

국민연금이 오는 2022년까지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투자 기준을 적용하는 자산군 규모를 전체의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 성과 모두를 중시하는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 및 경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 ESG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국내외 금융·산업계에서 형성되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서 "최근 들어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규모를 기금 전체 자산의 약 5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임투자란 기업의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투자 결정에 고려하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790조원에 달한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ESG 평가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매년 900여개 국내기업에 ESG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는 투자의사결정에 반영되고 있다"며 "현재 국내주

식 액티브 직접 운용자산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올해 내에 국내주식 직접 운용 전(全) 자산에 ESG 통합전략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1년부터 ESG 통합전략을 해외주식과 국내채권 자산에도 적용할 계획이며 기업과의 대화 주제를 환경 및 사회 이슈로 확대하고 대상 자산을 해외주식으로 넓혀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2022년부터는 주식 및 채권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때 책임투자 요소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고 있는 국내 주식 규모는 71조6000억원이다. 기금 전체 자산 중 10% 수준이다. 이 중 국민연금이 실제 ESG 전략을 활용하는 자산은 37.68%인 약 27조원에 그친다. 국내 주식 위탁운용 자산은 약 60조원으로 ESG 투자는 5조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는 166조원, 국내 채권 투자 규모는 322조원에 이른다. 김 이사장 발언대로라면 ESG 기준이 적용된 국민연금의 투자 규모는 오는 2024년이면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하는 국민연금의 석탄 관련 투자에 대해 김 이사장은 "대내외 우려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ktael@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반기문 “미국 파리기후협약 돌아올 것...바이든 당선, 매우 고무적”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제2의 지구는 없다...플랜B는 없어”

등록 2020-11-09 오전 9:26:09  
수정 2020-11-09 오전 9:26:09  
김경은 기자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반기문 위원장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되고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전 유엔사무총장)은 9일 서울 조신포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축사를 통해 “30년이나 걸려 수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파리기후협약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탈퇴시키면서 우리 기후변화 노력에 많은

후퇴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결정은 정말 단기적 시각이며 과학적으로도 잘못된 결정”이라며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선 것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매우 긍정적”이라며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국가로서 기후변화에 이렇게 느리게 대응하고 부진해서는 안된다. 기후변화에도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팬데믹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간과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후변화 노력을 적절하게 해왔다면 코로나 상황도 이만큼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2의 지구는 없다. 플랜B는 없다”며 전세계적 기후변화의 대응을 촉구했다. “우리는 앞으로 집단이주 갈등 심화, 공중보건 위기 증가, 공급망 충격, 인덱스 펀드 리스크 증대, 경제위기 장기화 등을 맞이할 것”이라며 “기후변화는 지구의 성격을 바꾸고 있고 치명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코로나의 회복은 단순히 재건, 노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친환경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 프랜시스 후쿠야마 “바이든 당선, 트럼프식 포퓰리즘 정치 무너질 것”

기사입력 2020-11-09 11:13 최종수정 2020-11-09 11:55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석좌교수 기조연설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코로나 이후 경제중심지 동아시아로 이동”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미국 스탠퍼드대 석좌교수(사진=AFP)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낙선하면서 미국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걸 다시 보여줬다. 대중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적 정치는 무너질 것이다.”

‘역사의 종말’로 유명한 세계적 정치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미국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9일 서울 조선포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후쿠야마 교수의 기조연설은 지난 5일(현지시간) 녹화돼 미 대선 결과가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

성과 미국 의회에서는 상원에서 공화당과 하원에서 민주당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나온 전망이다.

그는 "부실한 코로나 대응과 부실한 리더십간 상관관계가 잘 드러났다"며 "동아시아의 코로나 대응은 성공적이었고, 성장률 회복도 빠르게 나타나며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온 반면 미국과 유럽은 심지어 3차 유행도 목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후쿠야마 교수는 "코로나 이후 세계정세의 중요한 변화가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에 미치는 중요한 파급 영향은 경제중심지가 미국 및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가 낙선함으로써 미국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걸 다시 보여줬다"며 "트럼프를 추종하는 지도자였던 브라질, 인도, 필리핀 등에서 나타났던 트럼프를 모방한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면이 한층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서도 "독일과 뉴질랜드 총리 지지율은 크게 올랐다. 뉴질랜드 자유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며 "유럽의 포퓰리즘이 줄어들고 있고, 대중정합 정당이 제대로 해법을 제시 못하며 국정의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미국의 수많은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명백한 리더십 실패에도 표를 던졌다"며 "부정적 이미지가 일소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 뽁침해소, 청춘뉴스 '스냅타임'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8&aid=0004781673>

---

## 이데일리

## [마켓인]국민연금 "2022년까지 자산 절반에 책임투자"

기사입력 2020-11-09 12:30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위탁운용사 선정에도 책임투자 반영"  
 "국내주식 직접운용 전 자산에 ESG 통합전략"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자산의 절반에 책임투자를 적용한다. 책임투자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투자 결정에 고려하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790조원에 달한다.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서 "2022년까지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규모가 기금 전체 자산의 약 50%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2021년부터 ESG 통합전략을 해외주식과 국내채권 자산에도 적용할 계획이며 기업과의 대화 주제를 환경 및 사회 이슈로 확대하고 대상 자산을 해외주식으로 넓혀나갈 것”이라며 “2022년부터는 주식 및 채권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때 책임투자 요소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RI(책임투자원칙주도기구)에 따르면 책임투자 자산 규모는 지난 2006년 6조5000억달러에서 2020년 현재 103조4000억달러로 15년 만에 16배 성장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9년 6월에 PRI 서명 기관으로 참여한 뒤 책임투자를 담당하는 수탁자책임실을 두는 한편 지난해에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직접운용 규모는 71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37.68%인 26조9800억원에 책임투자를 적용하고 있으며 위탁운용 가운데 책임투자 적용 규모는 5조1900억원이다. 지난달에는 약 6년 만에 국내주식 책임투자형 위탁운용사 4개사를 추가로 선정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ESG 평가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매년 900여개 국내기업에 ESG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는 투자의사결정에 반영되고 있다”며 “현재 국내주식 액티브 직접 운용자산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올해 내에 국내주식 직접 운용 전(全) 자산에 ESG 통합전략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책임투자 목표 (자료=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한편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하는 국민연금의 석탄 관련 투자에 대해 김 이사장은 “대내외 우려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도 이날 컨퍼런스에서 “투자 프로세스 전반에 ESG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ESG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기후변화나 코로나 팬데믹 같은 문제에 경제주체들이 대응하는 매우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ESG 전략 펀드를 더욱 확대해 책임투자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내 해외투자를 수행하는 공공기금과 함께 해외투자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ESG 전략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다

양한 투자사례를 중심으로 책임투자 기회를 함께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해영 (hycho@edaily.co.kr)

-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 뽕침해소, 청춘뉴스 '스냅타임'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8&aid=0004781792>

---

## 이데일리

## "바이든 당선, 'ESG 고려' 책임투자 중요성 커질 것"

기사입력 2020-11-09 14:31 최종수정 2020-11-10 06:30

-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 제각각 ESG 평가 기준..."점차 표준화될 것"
- "정치적 영향력 받는 공적기금, 양날의 검"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조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라 투자시장에서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로 대표되는 책임투자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현재 제각각인 평가 기준도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모호한 책임투자 기준을 고려할 때 국내 대표적인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공단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헨리 페르난데즈(Henry Fernandez)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회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여해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면서 ESG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국내외 투자시장에서 ESG 투자의 중요성은 커지는 추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최근에는 ESG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환경 요소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ESG 요소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제각각이어서 비판도 나온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은 “ESG 관련 평가가 기관별로 다르다는 문제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즈 회장은 “오래된 기관인 신용평가사는 (과거에는 기준이) 다양했다가 점차 수렴해서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게 됐다”며 “ESG 평가도 점점 표준화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대부분 비재무적 요소여서 수렴이 어렵다”면서도 “바이든 하에서 규제 당국이 ESG 평가기관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선 국민연금공단과 KIC 등도 자산운용에 책임투자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2022년까지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규모가 기금 전체 자산의 약 50%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2021년부터 ESG 통합전략을 해외주식과 국내채권 자산에도 적용할 계획이며 기업과의 대화 주제를 환경 및 사회 이슈로 확대하고 대상 자산을 해외주식으로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ESG가 비재무적 요소를 기업 평가에 반영하는 만큼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원칙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비껴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성한 한국금융학회장(홍익대 교수)은 “공적기금은 효과적인 ESG 원칙의 매개체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양날의 검”이라며 “국민연금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월밍턴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활짝 웃고 있다. (사진=AP)

**이데일리**

# "아시아 부상에 국제질서 개편...'美 or 中' 제3국은 외교정책 딜레마"

기사입력 2020-11-09 13:44 최종수정 2020-11-09 13:56

세계경제연구원 국제컨퍼런스  
세션1, 자본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트럼프 이전 정상상태 복귀는 어려울 것"  
바이든 당선인, TPP 재가입 추진할 것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끝나지 않을 트럼프의 악몽'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 소식은 글로벌 거버넌스 정상화 측면에서 '희소식'이라는 평가속에서도 예전의 정상적(normal) 질서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로 다자주의 외교로 복귀할 경우 미국과 중국간 다툼 속에서 제3국의 외교정책 방향 수립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미국내 과제 더 시급한 바이든...트럼프 이전으로 복귀는 어려울 것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9일 서울 조선포털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서 "미 대선 결과는 희소식"이라면서 "하지만 트럼프의 만행과 실책은 앞으로 몇 년간 가까운 미래에 그 여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전 장관은 "미국이 다자주의를 저버리고 일방주의적 체계를 채택하면서 세계화 시대가 역행하고 엘리트 정치주의가 나타났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로버트 졸릭(Robert Zoelick) 전 세계은행 총재(전 미 국무부 차관)도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와 거리 두기는 하겠지만 차이가 극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의 압승 기대가 물건너가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반대파를 포용하는 한편 미국의 당면한 시급한 과제로 백신보급과 경제회복에 먼저 직면할 것"이라며 이렇게 언급했다. 미국 시민 대부분이 국제문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만 국제 외교는 관심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19 뉴노멀 시대: 자본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공동 기조연설자로 나서 코로나19가 낳은 세계 정세 변화와 미국 대선의 판세 및 여파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뉴욕대 석좌교수도 "바이든 당선이 과거의 정상상태로 복귀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스펜스 교수는 "의회를 상대로 외교부무에서는 대통령의 재량권이 상당하기 때문에 빠르게 국제사회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바이든은 기존 국가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외교기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국제질서는 재정립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아시아의 부상, 디지털 기술의 복잡한 발전 양상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국제체계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을 코로나19 국면에서 빠른 회복을 나타낸 국가로 지목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와 트럼프 행정부 이전의 국제질서와는 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미·중 갈등 지속...한국 등 제3국 외교 딜레마 직면

바이든 당선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러면 중국

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그간 공을 들였던 한국은 통상 정책의 전환을 요구 받을 수 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첫 다자주의의 결과물이었던 세계무역기구(WTO)가 미중 무역 분쟁 해결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WTO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164개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다. 상호 생각이 일치하는 무역기구 회원국간 협력이 중요해지면 서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 시기에 마무리됐던 TPP를 확정하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를 탈퇴했다.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는 바이든 당선인은 미·중 갈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제 3국의 외교정책 방향 정립에 모호성을 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재호 서울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인식이 지난 10년간 악화하면서 쌍방 보복조치가 단행되는 등 미·중 대결 양상은 지속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교류와 협력을 어느 정도는 추진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중국과의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도 진행하겠지만, 원칙에 입각한 현실주의 2.0 버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전략에 중국이 응답할지가 의문"이라며 "바이든이 들어서도 동아시아는 중대한 (중국이나 미국이나 선택해야하는)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 뽕침해소, 청춘뉴스 '스냅타임'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8&aid=0004781811>

---

**이데일리****"디지털 금융은 배타적..ESG 더 중요해질 것"**

기사입력 2020-11-09 16:05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금융의 배타성, 알고리즘화로 인종·지역 등 차별 공고화할수도****"ESG, 윤리나 가치 제고..투자 수익률 등은 여전히 고민해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디지털이 금융의 '배타성'과 만나면 차별이 공고화될 수 있다. 그래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피유시 굽다 DBS그룹 최고경영자(CEO)는 9일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의 세 번째 세션 '금융서비스 산업의 포스트 코로나 아젠다'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 '배타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대출을 해준다면 현금 흐름과 재무제표를 분석해 상환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고 상환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선택해 돈을 빌려주는 곳이 은행이란 얘기다. 하지만 이것을 IT의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다.

굽타 CEO는 "만일 은행이 리스크를 분석해서 성별이나 인종, 거주지역 등으로 대출을 선별하자고 하자. 금융서비스의 배타성을 내세워 알고리즘화 한다면 이것은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인가"라면서 지적했다.

이어 "보험만 해도, 만일 인공지능을 통해 리스크가 가입자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한다고 생각해 보자. 염기서열이나 DNA 등을 분석해 애플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낸다고 하면 보험산업은 근본적으로 무너진다"라면서 "우리는 정보를 알면 알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정보들이 금융의 '배타성'과 만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굽타 CEO는 이를 해결하는 키로 ESG에 주목한다. 디지털과 금융이 만나는 가운데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ESG, 특히 S(Society)를 통해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우리에게 중심을 잡아줄 만한 사회과학의 근본이 있어야 한다"라면서 "결국 ESG는 금융에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했다.

치보 탕 알리바바 홍콩 투자펀드 헤드는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서비스의 배타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했다. 그는 "과거 여신업체나 계리사를 보면 선별과정을 거쳐 일부에게만 은행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지금 핀테크는 기존 금융체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탕 헤드는 최근 알리바바가 투자한 한 핀테크 보험사에서 애완동물 보험을 내놓은 점을 예로 들었다. 보통의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보험은 만 8세 이하의 어린 동물로 국한하지만, 최근 핀테크 기업들은 동물의 나이와 상관없이 가입을 받으며 기존 금융에서 소외됐던 서비스로 눈을 돌려 포용력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인 프리미어파트너스의 레베카 추아 매니저는 “일종의 윤리나 가치 문제로 표현할 수 있겠다. 기술의 장점만큼, 단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수익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투자자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대중적인 시각에 맞춰 ESG가 하나의 투자 구성요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ESG의 수익률 등 투자 유망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해야 한다는 게 추아 매니저의 지적이다.

좌장을 맡은 헤니 센터 파이낸셜타임스 수석 컬럼니스트는 “이 토론 중 일부를 진행할 때만 해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미국 대선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났다”면서 “이제 ESG를 더욱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김인경 (5tool@edaily.co.kr)

-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 뽕침해소, 청춘뉴스 '스냅타임'

**이데일리**

# 반기문 "트럼프 파리기후협약 탈퇴는 잘못..복귀 고 무적"(종합)

기사입력 2020-11-09 17:33 최종수정 2020-11-09 17:48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제2의 지구는 없다...플랜B는 없어"  
 블랙스톤 PE, 모든 기업 ESG투자  
 탄화수소 전력 사용량 15% 감축 투자조건에 넣기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반기문 위원장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되고 미국이 파리기후협약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전 유엔사무총장)은 9일 서울 조선포털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

축사를 통해 “30년이나 걸려 수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파리기후협약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탈퇴시키면서 우리 기후변화 노력에 많은 후퇴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결정은 정말 단기적 시각이며 과학적으로도 잘못된 결정”이라며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선 것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매우 긍정적”이라며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국가로서 기후변화에 이렇게 느리게 대응하고 부진해서는 안된다. 기후변화에도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팬데믹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간과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후변화 노력을 적절하게 해왔다면 코로나 상황도 이만큼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2의 지구는 없다. 플랜B는 없다”며 전세계적 기후변화의 대응을 촉구했다. “우리는 앞으로 집단이주 갈등 심화, 공중보건 위기 증가, 공급망 충격, 인덱스 펀드 리스크 증대, 경제위기 장기화 등을 맞이할 것”이라며 “기후변화는 지구의 성격을 바꾸고 있고 치명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코로나의 회복은 단순히 재건, 노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친환경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스톤이 투자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ESG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투자심의 과정에 탄화수소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기업을 인수 조건에 추가했다”며 “우리가 투자하고 인수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사전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해 해당 기업의 기본라인 대비 15% 감축 의지가 있는지 확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 전력량을 줄이는 것이 수익성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SG 투자는 환경 등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에 접목하는 기법을 말한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 뽕침해소, 청춘뉴스 '스냅타임'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이데일리**

# 후쿠야마 "코로나, 트럼프식 포퓰리즘 끝내...경제중심 아시아로 이동"

기사입력 2020-11-09 17:31 최종수정 2020-11-10 06:30

- 세계경제연구원 국제컨퍼런스
-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 "금융위기가 낳은 괴물, 포퓰리즘 정치 종식"
- 코로나 상황서 출범하는 바이든...국내문제 더 시급
- 코로나19에 부상한 중국...미국 중국 압박 지속
- 미국이나 중국이나, 제3국 외교 딜레마 커질 것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의 중요한 파급 영향 중 하나는 경제 중심을 미국·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이동시킨다는 것이다. 대중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치가 보여준 부실한 리더십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도 코로나19의 긍정적인 면이다."(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석좌교수)

코로나19는 약 200년간 지속됐던 미국과 유럽 주도의 국제질서에 균열을 일으켰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대선레이스 초반 열세를 뒤집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도 코로나19 사태가 낳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일방주의 정책을 버리고 다자주의로 복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시대와의 결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트럼프 이전보다 훨씬 커진 중국의 존재감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다자주의 회귀 정책은 여타 국가의 동맹을 강조해 한국 등 제3국의 외교 딜레마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 ◇“코로나19 방역실패, 트럼프식 포퓰리즘 이데올로기 쇠퇴”

세계적 정치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교수가 9일 서울 조선폰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났던 대중영합적 포퓰리즘 정치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0년대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 마르크시즘은 종언을 선언했고 자유민주주의적 평화가 역사의 종착점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정치학계에 논란을 던진 인물이다. 하지만 그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을 낳았고 그 결과물이 트럼프식 미국 일방주의의 통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또 다른 역사적 전환을 낳으며 부실한 리더십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후쿠야마 교수는 “부실한 정권은 코로나19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조작하며 시민을 기만하고 코로나19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허위 주장을 하다 대규모 시위를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 역시 미국사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다시 보여줬다”며 “트럼프를 모방했던 브라질 인도 등의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면도 한층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뢰'같은 사회적 자본이 높은 사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하며 경제주도권이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시민간 신뢰가 높아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준수가 이뤄진다”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은 중앙집권식 통제와 전문 관료의 국정 주도가 잘 작동한 국가로 경제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내 과제 더 시급한 바이든...트럼프 이전으로 복귀는 어려울 것

이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출범해야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및 국제정책이 트럼프와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다.

로버트 졸릭(Robert Zoelick) 전 세계은행 총재(전 미 국무부 차관)은 “트럼프와 거리 두기는 하겠지만 차이가 극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분열된 미국사회 통합, 백신 보급, 경제회복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어 공화당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역시 바이든 당선인의 대(對)중국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슈워츠먼 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탈동조화(디커플링) 문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

며 중국을 향한 강경정책이 눈에 띄게 변화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뉴욕대 석좌교수도 "바이든 당선이 과거의 정상상태로 복귀는 아닐 것"이라며 "아시아 부상, 디지털 기술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국제체계가 재정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중 갈등 지속...한국 등 제3국 외교 딜레마 직면

바이든 당선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그간 공을 들였던 한국은 통상 정책의 전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첫 다자주의의 결과물이었던 세계무역기구(WTO)가 미중 무역 분쟁 해결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WTO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164개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은 만큼 생각이 일치하는 무역기구 회원국간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미국이 TPP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이후 11개국간에 맺어진 CPTPP은 재가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무역협정 체결보다는 국내이슈(경제재건, 일자리창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해왔다.

한국 등 제 3국의 외교정책 방향 정립은 더욱 모호해졌다는 분석이다. 정재호 서울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인식이 지난 10년간 악화하면서 쌍방 보복조치가 단행되는 등 미·중 대결 양상은 지속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전략에 중국이 응답할지도 의문이다. 동아시아는 중대한(중국이나 미국이나 선택해야하는)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 뽕침해소, 청춘뉴스 '스냅타임'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8&aid=0004782066>

## 이데일리

## "바이든 시대, ESG 투자가 수익으로 돌아올 때"

기사입력 2020-11-09 17:44

**美中 ESG 행보에...금융당국도 'ESG 수익성 확대' 고민 중**  
**중국도 2060년 탄소중립 내세워.."신사업 리드 욕심"**  
**금융당국 "산업-금융규제 연계해야 ESG투자 가치 부각"**  
**환경부 등과 함께 ESG 가이드라인 준비 중**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며 ESG투자가 전세계적인 산업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ESG를 추진하는 게 '수익'으로 이어질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9일 유장희 이화여대 교수는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2020 ESG 글로벌 서밋·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의 마지막 세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에서 "경제학 교과서에선 이윤 극대화가 목표함수라고 해왔지만 이제 환경과 사회가 새로운 목적 함수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패널들은 전세계 경제를 이끄는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이 ESG에 적극적인 점에 주목했다.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은 "미국의 신임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 대통령은 ESG를 새로운 삶의 방식, 사는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고 중국 역시 ESG투자가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친환경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또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면서 "미국이 ESG를 추구하며 미·중 간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중국 정부의 속내도 있고, 중국 내 환경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은 만큼 지도자가 이를 해결해줘야 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중국이 ESG를 통해 새로운 산업 원동력을 찾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위원장은 "중국은 미래 에너지가 바뀌고 근본이 바뀔 때 선(先)투자하면서 세계 경제를 리드하겠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ESG 투자에 과감하게 나서고 있다"면서 "태양광 발전패널이나 관련설비, 풍력발전, 배터리와 전기차 등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당국 역시 ESG 투자가 기업의 수익성으로 연결돼야 지속할 수 있는 만큼, 수익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은 모든 것이 돈의 흐름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의 가장 앞에 선 산업분야"라며 "ESG가 돈이 돼야 기업들이 움직이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ESG가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당국이 규제체계를 바꾸는 방법과 사회적 압박을 통해 기업들이 ESG투자를 하지 않으면 평판이 나빠져 장기적인 손해를 보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규제 당국이 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했더니 에너지효율이 높은 주택들로 구성된 주택저당채권과 낮은 주택들로 구성된 채권을 비교했더니 에너지효율이 높은 주택들의 주택저당채권 수익률이 훨씬 높았다"면서 "금융과 산업규제를 연계해서 움직여야 ESG 투자 가치가 더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당국은 ESG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 국장은 "자동차 핸들을 납품하는 기업이라 치면, 가솔린차에 납품하면 반(反) 녹색이고 수소차에 납품하면 녹색기업이 되는 식"이라며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 만큼, 현재 정부에서 환경부 등과 합심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김인경 (5tool@edaily.co.kr)

-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 뽕침해소, 청춘뉴스 '스냅타임'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이데일리**

# 세계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 "탄소 15% 줄여야 투자하겠다"

기사입력 2020-11-09 20:07 최종수정 2020-11-10 06:31

- 세계경제연구원 국제컨퍼런스
- ESG투자 바이든 당선으로 확대 전망
- 국민연금도 전체 기금의 50%까지 책임투자 비중 확대
- 반기문 "미국 파리기후협약 복귀 고무적"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참석자들이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의 화상 기초연설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조해영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친환경정책을 앞세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계기로 기후 변화와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향후 투자·인수하는 모든 기업 심사에 탄소 사용량을 15% 저감

하는 조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를 전면 확대하는 정책이다. 국민연금도 책임투자 적용 자산 규모를 기금 전체 자산의 5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 기조연설을 통해 "탄소 전력량을 줄이는 것이 수익성을 높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블랙스톤은 투자심의 과정에 탄화수소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기업을 인수 조건에 넣기로 계획했다"며 "우리가 투자하고 인수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사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해 해당 기업의 베이스 라인 대비 15% 감축 의지가 있는지 확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선 국민연금공단과 한국투자공사(KIC) 등도 자산운용에 책임투자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내년부터 ESG 통합전략을 넓혀 해외주식까지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2022년에는 책임투자를 5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투자시장에서 ESG 투자의 중요성은 커지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환경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의 정책이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ESG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헨리 페르난데즈(Henry Fernandez)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회장은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면서 ESG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후변화와 팬데믹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간과해 전 세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되고 미국이 파리기후협약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 뽕침해소, 청춘뉴스 '스냅타임'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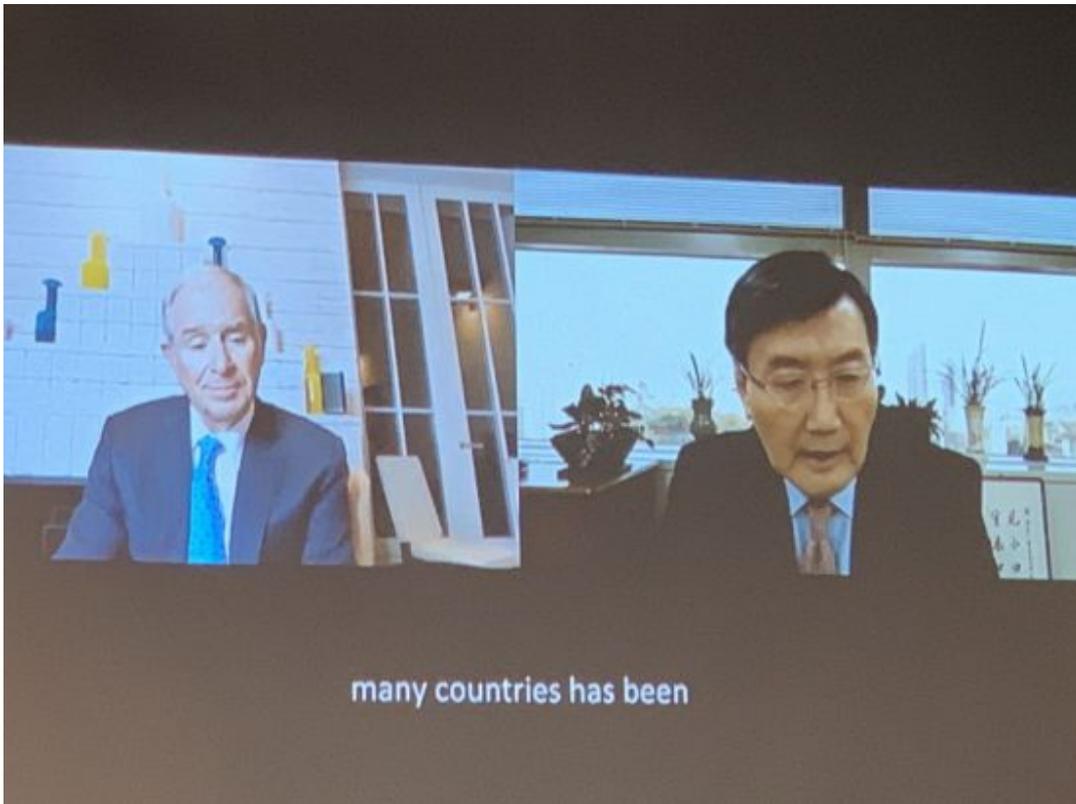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8&aid=0004782151>

아시아경제

#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바이든 中대응, 혁명적 변화 없을것"

기사입력 2020-11-09 10:48

슈워츠먼 "앞으로 탄소배출 15% 줄일 수 있는 기업 따져보고 투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바이든 당선, 기후변화 해결에 고무적"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이 9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화상 회의를 통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세계 최대 사모펀드 그룹인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대(對)중국 강경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에 대한 미 의회의 부정적 시각이 여전해서다. 슈워츠먼 회장은 또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한 투자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투자시 탄소배출을 15% 줄일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슈워츠먼 회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IGE)-KB금융그룹이 개최한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 컨퍼런스에 영상으로 참석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의회선 중국에 대한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는 여전히 중국과의 경제 디커플링 문제,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비슷한 시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응 방식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다소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관세 정책이 아닌 양국 호혜적 정책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면서도 "대중 정책에 혁명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중 분쟁의 이유로는 양국 시각차를 들었다. 중국이 지난 4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00달러(약 33만5000원)에서 1만1000달러로 늘었고, 이를 두고 선진국들은 "지금껏 중국에 기술·관세적 수혜를 준 만큼 이제는 개방할 때"라고 말하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미국(1인당 GDP 6만4000달러)에 비하면 중국은 빈국"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뤘고, 미·중은 이미 전 세계 경제의 35~40% 정도를 차지한다"며 "전 세계 경제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국가 경제가 디커플링을 나타낸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슈워츠먼 회장은 앞으로 미·중 무역전쟁 향방에 대해 "두 국가가 얼마나 양보하며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봤다. 이 방법을 찾지 못하면 전 세계 흐름도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슈워츠먼 회장은 앞으로 기업 투자시 환경이슈 대응여부, 탄소배출을 15% 가량 감축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투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환경문제와 땄 수 없고, 산불·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도 이어지고 있어 기업투자에도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안이 됐다는 얘기다. 그는 "사전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해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여부를 평가할 것"이라며 "실제로 탄화수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기업의 수익성도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곧 미국에서 백신 허가가 나올 것이라며 "2021년 말이 되면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원한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내년 말부터는 경제가 정상화 단계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블랙스톤의 한국 투자자산은 약 170억달러 수준이다. 그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관리에서 배울점이 많다"며 "한국자산 수익성이 좋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기후변화 이슈를 해결하는데 고무적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그는 "글로벌 문제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만 해결 가능하며, 미국 역시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배출 제로 전략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한국은 세계경제 10위권의 기술강국인데도 기후변화에 느리게 대응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석좌교수, 미국 국무부 차관을 역임한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WB) 총재, 헨리 페르난데즈 MSCI 회장, 스위스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필립 힐데브란트 블랙록 부회장, 팀 아담스 국제금융협회(IIF) 총재 등이 참여했다. 전광우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는 대공황 이후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며 "탈세계화와 디지털화가 급물살을 타는 지금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 ▶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 ▶ 발 빠른 최신 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
- ▶ 요즘 트렌드 모아보고 싶을 땐 '드링킷'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277&aid=0004788372>

---

**헤럴드경제**

# "바이든 당선, 美 파리기후협약 협상 테이블 올 것"

기사입력 2020-11-09 10:46 최종수정 2020-11-09 10:54

세계경제연구원- KB금융그룹 국제 컨퍼런스  
바이든 당선, 파리기후협약 협상 테이블로 오라는 것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 소식에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국이 앞으로 파리기후협약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이므로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은 9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는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을 주제로 열렸다.

lucky@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 반기문 “한미동맹, 한 차원 높은 발전되길”...바이든에 축하 서한

기사입력 2020-11-09 13:50

“한국인, 바이든을 진정한 친구로 믿어”  
“기회 되면 직접 만나 대화 기대” 언급도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고 “한미동맹이 앞으로 더욱 공고한 동맹으로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이루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 전 총장은 9일 반기문재단을 통해 공개한 서한에서 “많은 한국인들은 각자가 한국과 한국인의 진정한 친구라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피로 굳게 맺은 군사동맹에서 시작해 포괄적 가치동맹으로 발전됐다”며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시 부통령이었던 각하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일했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각하의 리더십이 미국의 번영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증진하는 시대적 과업을 커다란 성공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후변화와 관련한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을 언급하며 "이를 시작으로 미국이 유엔과 함께 지난 수년간 손상된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우리 자손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신념 확산의 여정에 저도 자랑스럽게 동참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한 반 전 총장은 "기회가 되면 직접 만나 공동의 신념과 가치에 대해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반 전 총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의 컨퍼런스 축사에서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앞으로 파리기후협약 협상 테이블로 오리라는 것"이라며 "미국이 앞으로 파리기후협약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이므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 ▶ 환경적 대화기구 '헤럴드에코'
- ▶ 밀리터리 전문 콘텐츠 '헤밀'
- ▶ 헤럴드경제 네이버 채널 구독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6&aid=0001749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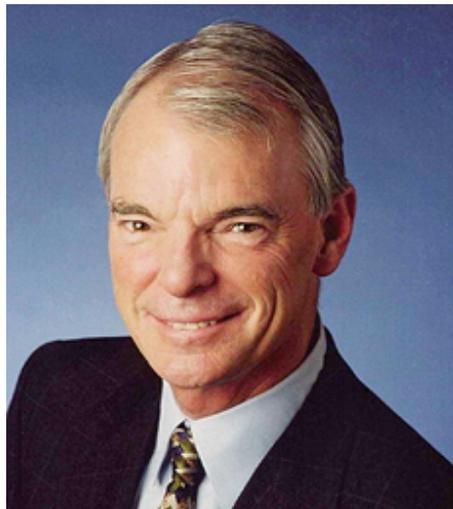
---

아시아경제

# '노벨상' 스펜스 교수 "美바이든 외교정책 단언 어려워"

기사입력 2020-11-09 11:18

"美·中 갈등도 당분간 지속될 듯"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교수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교수는 9일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국내외에서 상당히 복잡한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산업구조나 아시아국가 부상 등) 상당한 부분이 변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과거 정상 구조로 돌아간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세계경제연구원(IGE)·KB금융그룹이 개최한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 컨퍼런스에 영상으로 참석해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산을 지우고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스펜스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불거진 미·중간 갈등도 향후에 계속될 것으로 봤다. 그는 "공화당·민주당 모두 중국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미국의 정치적 분열도 상당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당선인이 얼마나 미국 내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사회 문제에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인 파리기후협약 복귀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이 공언했던 세계무역협회(WTO) 탈퇴 역시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변한 점들로는 디지털화, 경제 무게중심이 방역 성공국가(동아시아)들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는 "약 5년동안 이뤄져야 할 변화가 약 2개월만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스펜스 교수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경제 구도가 개편될 것이라고 보며, 이 부분은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대만·중국·홍콩·싱가포르 등을 방역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국가라고 봤다.

내년 경제의 경우 아시아 외 국가들의 경제 충격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그는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신속히 보급돼 코로나19 확산이 멈출 경우 내년 세계경제가 V자로 성장할 수도 있다"면서도 "앞으로의 회복세는 산업부분간 성장세에 격차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펜스 교수는 요식·항공·관광업 등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며 "경제활동 규제를 푼다 하더라도 불안감 때문에 여전히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 ▶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 ▶ 발 빠른 최신 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
- ▶ 요즘 트렌드 모아보고 싶을 땐 '드링킷'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277&aid=0004788445>

---

아시아경제

# MSCI 회장 "코로나는 3차 세계대전...새 관점으로 기업·정부평가"

기사입력 2020-11-09 14:04



헨리 페르난데스 MSCI 회장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세계 주요 4대 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헨리 페르난데스 회장은 9일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더 중요해졌다"며 "올해는 지속가능한 투자와 금융이 촉진되는 역사적인 해로, 변화를 빠르게 수용해야 선발주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회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IGE)·KB금융그룹이 개최한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 컨퍼런스에 실시간 영상으로 참석해 "코로나19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전통적인 전쟁에서 적을 물리칠 때와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며 "기업과 기후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될 테고, 우리도 정부나 기업 등을 모두 새로운 관점에 따라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정부, 기업 등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페르난데스 회장은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정부가 거버넌스를 이용해 어떻게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했는지, 혹은 타개하지 못했는지 등을 반영해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SG 평가체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보고 있어 어렵긴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할 것"이라며 "ESG 평가는 점차 표준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기사 주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11002150819805001](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11002150819805001)

## 2020 ESG 글로벌 서밋

입력: 2020-11-09 20:08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가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이 9일 열린 가운데 에서 참석자들이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가 화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DigitalTimes All Rights Reserved.

# Is pro-Trump Blackstone CEO's ESG commitment contradictory?

2020-11-09 : 17:04



Participants listen to Blackstone Group Chairman Stephen Schwarzman's pre-recorded speech during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KB Financial Group International Conference at Westin Chosun Hotel in Seoul, Monday. / Yonhap

## Former UN secretary-general lauds Biden's plan for climate change

By Park Jae-hyuk

Blackstone Group Chairman Stephen Schwarzman's "righteous" speech on his company's commitment to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principles may have moved the hearts of many participants in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KB Financial Group International Conference in Seoul, Monday.

But at the same time, his remarks may have been considered "self-contradictory" by those who are aware that he donated a very large amount of money for the victory of U.S. President Donald Trump, who withdrew the world's largest economy from the Paris Agreement.

In the conference titled "ESG Global Summit: The Road to Resilient Economy and Sustainable Finance," the world's largest private equity firm's chief executive introduced his company's pledge to invest in businesses that can reduce carbon emissions by more than 15 percent.

Emphasizing environmental issues have become more important for investors after the COVID-19

pandemic and various natural disasters including wildfires and typhoons, he said his company's business model has improved its profitability.

Known as Trump's long-time friend and unofficial economic adviser, however, Schwarzman has served as Wall Street's top donor to Republican super PACs. He has spent more than \$27 million to support Trump, despite his anti-environmental policies.

Perhaps for these reasons, he barely expressed any hopes for Joe Biden in his pre-recorded speech, saying Biden's projected victory will have a limited impact on U.S. policy toward China, and Republican control of the Congress in a Democrat administration will be better for his country.

This was in stark contrast to the perspectives of other speakers at the conference, such as former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Ban Ki-moon and Stanford University Professor Francis Fukuyama.

Ban, who is leading the National Council on Climate and Air Quality, did not hesitate to level criticism at the outgoing U.S. president in a congratulatory speech.

Describing Trump's decision on the Paris Agreement as "short-sighted," he said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be more helpful for the global environment, given that the president-elect has unveiled a plan to rejoin the international accord aimed at halting global temperature rises.

Fukuyama, the author of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was also favorable to Biden's stance on climate risks and said the result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has signaled the collapse of populism worldwide.

In the following sessions, global experts including former World Bank President Robert Zoellick, MSCI Chairman Henry Fernandez, BlackRock Vice Chairman Philipp Hildebrand and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President Tim Adams spoke on their thoughts about ESG. They forecast that ESG principles will emerge as key factors for businesses in their making of decisions on investments.

# 반기문 "바이든 당선은 파리기후협약에 돌아오리라는 것"

김태호 | 승인 2020.11.09 10:23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은 9일 "미국이 앞으로 파리기후협약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이므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공동 주최 국제콘퍼런스 축사에서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앞으로 파리기후협약 협상 테이블로 오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를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가능한 기후변화의 파괴성을 볼 수 있었다"며 "공중보건 위험 증가, 공급망 충격, 보험사와 인덱스펀드 위험 증대, 경제위기 장기화 등 문제가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는 물론 영리기업도 기업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영위해 가지 않으면 어떤 미래가 그려질지 상상해 봤을 것"이라며 "기후변화는 우리가 모두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글로벌 이슈이며, 다자적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서 기후변화 노력이 지금처럼 부진해서는 안 된다"며 "첨단기술과 인공지능(AI)이 일어나는 한국과 같은 강국에서 노력하고, 기후변화 선

두주자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바이든의 당선 연설은 미국 국민뿐 아니라 한국인, 전 세계에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치유, 단합, 미국이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 존엄성, 인간성, 믿음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우리와도 관련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2020 지속가능경영(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을 주제로 열렸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호

FNTIMES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 반기문 "미국 파리기후협약 돌아올 것 고무적...바이든 당선 긍정적"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기사입력:2020-11-09 10:52:11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제8대 UN 사무총장)이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공동주최 '2020 ESG 글로벌 서밋'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0.11.0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제8대 유엔사무총장)이 9일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을 고무적으로 바라본다"고 말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공동주최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 축사에서 "조 바이든의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에 주목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앞서 유엔사무총장으로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노력해왔고 30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며 "미국(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탈퇴한 결정은 정말 단기적 시각이며 과학적으로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회복은 "단순히 노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친환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팬데믹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코로나와 기후변화는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이슈로 다자주의적 대응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은 정말 중요하며, 분명한 경로로 최선의 선택이고 희망으로 플랜B는 없다"고 제시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조 바이든 당선인 승리 연설을 빗대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기도 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치유, 단합, 미국이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 존엄성, 인간성, 믿음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여러 키워드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2020 ESG 글로벌 서밋'에서는 스티븐 A.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석좌교수가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의 세계', 'ESG 투자의 뉴 트렌드 및 공적 기금의 역할', '금융서비스산업의 포스트 코로나 아젠다' 등 세션으로 진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mailto:bravebambi@fntimes.com)  
<저작권자 © F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린트하기

FNTIMES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 국민연금, 2022년까지 운용자산 절반에 ESG 책임투자 적용

기사입력:2020-11-09 20:09:2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2022년까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기준을 적용하는 자산군 규모를 전체의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9일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ESG 투자의 뉴 트렌드와 공적기금의 역할' 주제의 기조연설을 하고 책임투자 계획에 대해 밝혔다.

김용진 이사장은 "2022년까지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규모가 기금 전체 자산에서 약 50%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2021년부터 ESG 통합전략을 해외주식과 국내채권 자산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용진 이사장은 "현재 (ESG 평가 기준이) 국내 주식 액티브 직접 운용자산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올해 안에 국내 주식 직접 운용 전 자산에 ESG 통합전략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규모는 790조원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0월 국내주식 위탁부문의 책임투자형 위탁운용사 4곳을 추가 선정하는 등 책임투자 보폭을 넓히고 있다.



사진= 국민연금공단

**부산일보사**

# 세계최대 사모펀드 "바이든 對中정책, 혁명적 변화 없을 것"

기사입력 2020-11-09 15:29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對)중국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9일 전망했다.

슈워츠먼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공동주최 국제컨퍼런스 '2020 ESG 글로벌 서밋: 복원력 강한 경제와 지속 가능한 금융의 길'의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

기조연설은 슈워츠먼 회장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담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이전에 녹화됐다.

슈워츠먼 회장은 대담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미 의회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탈동조화(디커플링) 문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향한 강경정책이 눈에 띄게 변화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점은 대화법이 다소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관세 정책 대신 양국 호혜적 정책 등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혁명적 변화는 없을 것"이

라고 예상했다.

슈워츠먼 회장은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경제의 35~4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양대 산맥을 이루는 두 국가 경제가 지속해서 디커플링을 나타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두 국가가 상대 국가가 원하는 방향이면서 자국 이해와도 맞는 방향으로 타협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역시 녹화 기초연설자로 나선 프란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코로나19가 세계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려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과 영국에 대중 포퓰리즘이 부상했는데, 이 또한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코로나19가 부실한 리더십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보다 코로나19 대응이 훨씬 부족했던 게 사실이며, 이 부정적 이미지를 대선에서 일소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busan.com](mailto:jhwan@busan.com)

-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 '터치 부산' 앱 출시, 부산일보 지면을 내 손 안에!
-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82&aid=0001041578>

---